

뚝 떨어진 크루즈 관광객...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대형 쇼핑센터 유치... '유커' 잡아라

〈旅客·중국관광객〉



2만4000톤급 크루즈선박 중화태산호(Chinese Taishan)가 지난 20일 1100여명의 승객·승무원을 태우고 제주를 거쳐 여수엑스포항 크루즈부두에 입항했다.

을 들어 여수 등 전남지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수·광양항을 통해 5만4000명이 방문했던 크루즈 관광객은 올해 10월 현재 고작 1000여명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여파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2만4000톤급 크루즈선박 중화태산호(Chinese Taishan)가 1100여명의 승객·승무원을 태우고 제주를 거쳐 여수엑스포항 크루즈부두에 입항했다.

중화태산호는(정원 1450명) 중국자본으로 만든 첫 크루즈선사인 보하이크루즈 소속으로 지난해 말 여수항 크루즈부두 정비 사업을 완공한 이후 첫 입항한 크루즈 선이다. 이번 중화태산호의 여수항 첫 방문에 따라 메르스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크루즈선의 여수 기항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여수시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크루즈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크루즈 선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대형 쇼핑센터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크루즈 관광을 잡아라...전국 자치단체 경쟁 치열=크루즈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소비성향이 강한 부유층 관광객이 주로 크루즈 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한 해 국내 크루즈 여객 지출규모는 총 1억 1800만달러(1298억원)이며, 8만급 크루

여수광양항 작년 5만2000명에서 올 첫 입항 1100여명에 그쳐

15만t급 부두시설 작년 완공 제주 연계 최고 기항지 강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필요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크루즈선 한 척이 입항할 때마다 2000~3000명의 관광객이 함께 들어오며 쇼핑에 만 1인 평균 7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전에서 밀리는 전남=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수시와 전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여수·광양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2년 1만 6000여명, 2013년 4만 7000여명, 2014년 5만 2000여명 등으로 증가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메르스 여파 등으로 크루즈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여수항이 기존 8만톤 급 크루즈 부두에서 2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5만톤 급 대형 크루즈 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모두 완공한 점은 향후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숙영 경희대 관광과 교수는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하고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여수항이 최고 기항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여수에 중국 등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이 이뤄진다면 국내 대표 크루즈 관광지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전남도 등과 함께 중국 내 마케팅 강화를 통한 홍보활동과 국제 크루즈 선박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설 방침이다.

강승원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장장은 "향후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대형 쇼핑센터 유치 등 맞춤형 관광 시설과 통역 등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 역사문화를 겸비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공항 동절기 운항스케줄 조정...당일 비즈니스 가능

여수공항 항공스케줄이 동절기를 맞아 일부 조정됐다.

26일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따르면 25일부터 내년 3월26일까지 동계기간 항공기 운항스케줄이 일부 조정됐다.

여수~김포노선은 월~목, 토요일 마지막 편이 변경돼 김포발은 기존 오후 5시20분에서 오후 6시40분으로 조정됐다. 여수출발은 오후 6시50분에서 오후 8시15분으로 연장됐다.

이번 스케줄 조정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당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 업무 후 다시 여수로 돌아오는 비즈니스 이용

객의 편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출발 승객도 당일 여행시간이 늘어나 관광객 유치 효과 등도 기대된다는 게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의 설명이다.

제주노선은 주 5회 운항을 계속되던 주중 운항스케줄은 여수출발 오후 2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됐다. 여수도착도 기존 오후 1시55분에서 오후 3시25분으로 조정됐다.

여수공항은 이번 운항스케줄 변경과 함께 지난 3월부터 김포노선 일부 항공편에 대해 시행중인 최대 40% 항공요금

할인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노선 항공요금도 최대 40% 할인된 3만9100원부터 이용가능하다.

또 여수공항 주차장도 연말까지 여수출발 제주행 승객 중 1일 이상 주차장 이용객에 대해 탑승권을 제시할 경우 3일까지 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조수행 여수공항지사장은 "공항 운항시간 연장등 지역 국가산단 비즈니스 승객의 불편 개선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LG화학, 여수산단 전망대 경관살리기 앞장 왕벚나무 등 280주 심어

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 10경인 '여수산단 전망대' 경관살리기에 나섰다.

LG화학 여수공장은 26일 "산이 가장 아름다운 날인 '산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지난 22일 환경사랑 캠페인으로 여수산단 전망대 가꾸기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 사회봉사단은 이날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 10경 중 하나인 '여수산단 전망대' 도로 주변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했다.

봉사단이 식재한 수목은 남부지역 주요 수종이자 여수시 권종 수종인 가시나무와 산다화(애기동백)를 비롯한 왕벚나무, 철쭉 등 280여주다.

환경사랑캠페인은 사업장 인근을 중심으로 훼손돼 있는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중 하나다.

안태성 LG화학 주재임원은 "많은 관광객이 여수산단 전망대를 찾고 있는 만



LG화학 여수공장 사회봉사단이 지난 22일 여수산단 전망대에서 왕벚나무 지주목을 설치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LG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중 하나다.

안태성 LG화학 주재임원은 "많은 관광객이 여수산단 전망대를 찾고 있는 만

큼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환경사랑캠페인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전국 전통시장 여수서 상생발전 모색

'우수시장 박람회' 성료...110여곳 참가 다양한 행사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여수에서 모여 미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시는 26일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전시·판매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15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12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했으며, 전국상인연합회와 여수시가 공동 후원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엄선된 전국

110여개 우수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시장상인들의 축제로 관람객만 10만명이 넘는 전통시장 부문 국내 최대 행사다.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 주철현 여수시장과 진병호 상인연합회장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우수시장 포상 수여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에 전국 17개 시·도 114개 우수시장과 5개 협력업체 등이 참여해 75개의 전통시장 전시·판매부스와 24개의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장은 야외전시장과 엑스포홀 등에 설치

된 전통시장관과 특성화관, 상생협력관, 미래관, 여수시 홍보관, 먹거리 장터 등이 들어섰으며, 주요행사로는 전통시장 콘퍼런스 활성화대책과 교육 우수사례발표 등이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젊음과 도전,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전통시장에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한 '미래관'과 '특성화관', '상생관' 등을 구성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영은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우수시장박람회를 통해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잡은 여수의 명성을 전국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박람회 기간 지역 숙박·음식업 등의 매출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목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